

제주도민의 복지 욕구와 사회문제 인식*

강 세 현**

요 약

이 글은 제주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복지 욕구와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현재 복지 기관 및 시설에서 수행 중인 서비스의 인지 및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욕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개념과 인식 방법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욕구조사에 필요한 조사 내용을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제주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질문지를 통하여 욕구를 조사하는 일반인구조사를 활용했다. 분석에 사용한 최종적인 질문지는 995부이다.

자료 분석 결과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민들은 피상적 수준에서는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인지 정도가 높으나, 실제 서비스 활용도는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둘째, 제주도민들은 청소년문제나 실업문제보다도 문화·여가시설 부족을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제주도민들은 불량청소년지도, 의료 상담 및 치료서비스와 같이 비교적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를 복지관에서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넷째, 사회복지단체 후원, 이웃돕기 활동,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대한 태도 등을 감안해 볼 때, 제주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차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여지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주요 색인어 : 욕구, 사회문제, 욕구조사

* 이 글은 1999년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제주도민 사회복지 욕구조사』 자료의 일부를 다시 분석하여 재구성하고, 이론적 부분을 보충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비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I. 머리말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전개는 제주지역의 복지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이로운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에 알맞게 정책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인재, 1995). 지방자치는 지방 자체의 창조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 독자적인 방안을 찾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 말하자면 지방자치 시대의 사회복지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사회복지 환경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새로운 복지문제들이 등장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욕구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욕구조사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 변화를 파악하여, 욕구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적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욕구 파악을 통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업을 재조정할 수 있다(김성이·채구묵, 1997:10-11).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규명된 사회문제를 다루는 한에서 정당화되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에서 욕구조사와 문제분석은 서로 관련된 행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Kettner, Moroney & Martin, 1999:43).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욕구조사와 문제분석은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크게 보면 욕구조사의 내용에 사회문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다음의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제주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심각 정도와 복지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현재 복지 기관 및 시설에서 수행 중인 서비스의 인지 및 활용 실태를 알아본다.

셋째, 욕구조사를 통해 제주도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시설들의 복지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 정책 개발의 우선 순위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II. 욕구와 사회문제 : 개념과 인식 방법

1. 욕구의 개념과 인식 방법

욕구는 사회복지 활동의 핵심적인 개념이며, 사회복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한다(Hill & Bramley, 1993:56).

바커(Barker, 1995:251)의 『사회사업사전』에서 욕구(needs)는 “생존, 행복, 실현을 위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욕구란 개인이나 집단들이 생존해 나가고, 행복해지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적 입장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욕구는 인간욕구(human needs), 기본욕구(basic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이다(남세진·조홍식, 1995:34).

인간욕구는 인간이 그 존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충족해야 하는 본질적인 현상을 말한다(박용순, 1999:21). 이를테면 매슬로우(Maslow, 1992:47-62)가 제시하는 ① 생리적 욕구, ② 안전의 욕구, ③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④ 자기존중의 욕구, ⑤ 자아실현의 욕구 등은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욕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슬로우가 제시한 인간욕구들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Hill & Bramley, 1993:61). 이렇게 사회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욕구는 인간이 원하는 어떤 것이나 또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욕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기본욕구는 인간 욕구들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며 필수적인 것들의 최저 수준에만 적용되는 욕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본욕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의식주의 해결과 같이 인간에게 공통적이다. 둘째, 생존과 자원의 보장과 같이 인간성을 유지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이다. 셋째, 시대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욕구 만족의 정도에 따라 욕구 충족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 수준의 욕구 충족이 정해져야 한다. 그리하여 기본욕구라는 말에는 인간이면 누구나 그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규범적 선언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김상균, 1987:17-19).

사회적 욕구는 여러 사회적 위험 때문에 개인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수가 상당히 많게 될 때, 처해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집단적인 욕구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욕구는 기본욕구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구체적인 욕구가 사회적 욕구로 규정될 수 있으나, 없느냐에 관한 결정은 궁극적으로는 특정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과 시대적 변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욕구에 대한 한 가지 예로 하베이(D. Harvey)는 음식, 주택, 의료, 교육, 사회 및 환경 서비스, 소비재, 레크리에이션, 이웃분위기, 대중교통과 같은 9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남세진·조홍식, 1995:36-37).

욕구는 철학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Hill & Bramley, 1993:62).

한편, 브래드쇼(Bradshaw, 1972; 김성이·채구목, 1997:19-21에서 재인용)는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인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인식의 기준은 규범이며, 이 기준에 의해 파악된 욕구를 규범적 욕구라 한다. 인식의 기준인 규범은 전문가들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어떤 수준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규범을 설정한다. 이 규범과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의해 욕구가 파악되며, 현재의 상태를 규범적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가 제시될 수 있다.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엘리트 위주의 서비스가 되어 복지 대상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인식 기준은 체감이며, 이 기준에 의해 파악된 욕구를 체감적 욕구라 한다. 이 경우는 사회구성원들의 느낌이 욕구 파악의 기준이 된다. 이 방법은 복지 대상자들이 어떤 욕구 상태에 있는지, 또는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직접 물어보아서 욕구의 상태나 서비스를 파악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공개토론회를 통해 체감적 욕구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도 있다. 이 방법은 객관적인 욕구 측정이 되지 못하고 개인의 인식에 의해 욕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인식 기준은 사회구성원의 표현 또는 행위이며, 이 기준에 의해 파악된 욕구를 표현적 욕구라 한다. 이 방법은 체감적 욕구가 행동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체감적 욕구는 사회구성원들이 내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정도에 의해 파악되는 데 반해 표현적 욕구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사가 실제 외부로 나타난 행위에 의해 파악된다. 표현적 욕구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이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는 해결책을 갖게 되는 단점이 있다.

네 번째 인식 기준은 비교이며, 이 기준에 의해 파악된 욕구를 비교적 욕구라 한다. 이 경우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 수여 상태가 비교 기준이 된다. 즉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누구를 비교의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욕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의 기준으로 많이 이용한다. 즉 모집단의 평균보다 서비스를 덜 이용한다면 욕구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집단의 평균을 얻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기 쉬운데 이 경우 이용 정보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브래드쇼는 어떤 방식이 욕구를 파악하는데 가장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Dean, 1996:32).

한편, 로스(Roth)는 이상적 상태, 희망하는 상태, 기대하는 상태, 규범, 최소한의 충족 상태와 같은 다섯 종류의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 각각에서 현재 상태를 뺀 나머지를 욕구로 인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성규탁, 1998:145-146).

2. 사회문제의 개념과 인식 방법

사회문제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① 사회적 가치(또는 규범)에서 벗어나고, ② 상당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며, ③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며, ④ 다수의 사람들이나 영향력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고 있고, ⑤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고, ⑥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것을 말한다(최일섭·최성재, 1995:25). 그런데 사회문제의 발생에는 그 전제로서 개인문제의 발생이 선행되며, 개인문제는 욕구의 불충족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에서 문제는 일단 욕구와 연관된 것으로서 존재하며, 문제와 욕구는 1:1의 대응관계를 지니고 있어 사회복지를 통한 욕구 충족은 문제 해결과 예방으로 연결된다(남세진·조홍식, 1995:38-39).

구체적인 사회문제의 형태로는 다음의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최일섭·최성재, 1995:41).

- ① 사회변동 또는 사회해체 문제: 가족문제, 환경문제, 노인문제
- ② 사회적 불평등 문제: 빈곤문제, 성차별문제, 노사문제
- ③ 사회적 일탈 문제: 청소년 비행 문제, 범죄문제, 성폭력문제, 약물중독문제, 정신건강문제

한편,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은 크게 객관주의적 입장과 주관주의적 입장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전병재, 1990:26-30).

우선 객관주의적 입장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객관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는 사회를 기계론적으로 보는 동시에 이를 객관과학적으로 문제삼으면서, 사회가 영위되는 보편법칙에 어긋나는 현상을 해체 현상으로 보는 사회해체론적 시각, 사회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특정

한 도덕적 가치를 전제로 하는 사회병리학적 시각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주관주의적 입장에서는 사회문제의 인식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의 결과인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무엇이 사회문제인지는 각자의 느낌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진정한 합의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란 대개의 경우 진정한 것이기보다는 특정 지배집단의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조작된 것이고 또 특정 집단성원의 합의도 합리적인 인식과정을 통한 것이라기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느낌의 잠정적이고 우연적인 공감대에 불과한 것으로서, 마치 바람에 불리는 안개의 형상과도 같이 집합적 의식 내지 인식의 모양이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속에는 사회문제 인식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가치갈등론적 시각이 포함되는데, 이 시각에서는 한 사람에 의해서 사회문제로 규정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¹⁾

사회문제의 인식에 있어 객관주의적 인식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주관주의적 입장에서 지적하는 바대로 객관주의적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규정되어도 사회문제의 규정에는 이론의 여지가 항상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설계 및 실시

이 조사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복지 욕

1) 러빙톤과 와인버그(Rubington & Weinberg, 1981)는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을 ① 사회병리학적 시각, ② 사회해체론적 시각, ③ 가치갈등론적 시각, ④ 일탈행위론적 시각, ⑤ 낙인론적 시각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구와 사회문제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조사연구에서는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에 따르면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욕구 상태에 있는지, 또는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직접 물어보아서 욕구의 상태나 서비스를 파악하는 체감적 욕구 인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 조사의 연구 방법은 지정된 지역 내 주민 가운데서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면접 또는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얻어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욕구를 조사하는 일반인구조사(general population survey)를 활용했다(성규탁, 1998:152-156).²⁾

표집은 제주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되, 조사에 드는 비용, 시간 그리고 작업상의 능률 등을 고려하면서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한 층화집락표집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지역을 제주시 지역, 서귀포시 지역, 남제주군 지역, 북제주군 지역 네 부분으로 나눈 후, 네 부분 지역에 속하는 동 또는 리를 마지막 표집 단위로 하여 그로부터 최종 표집 대상인 가구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마지막 표집단위인 동 또는 읍·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 남자와 여자 성비를 고려하여 최종 표집단위에서 표본을 할당했다.

조사는 1999년 5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본조사에 동원한 면접원들은 제주한라대학교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학생 26명으로, 사전에 조사의 목적과 질문지 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조사에 투입되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질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질문지나 분석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질문지를 제외한 995부의 질문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성규탁(1998: 149-165)은 욕구측정의 기법으로 ① 지표분석, ② 일반인구조사, ③ 표적인구조사, ④ 프로그램운영자/서비스제공자 조사, ⑤ 주요정보제공자조사, ⑥ 행정자료조사, ⑦ 집단접근방법을 통한 지역사회 의견조사(지역사회 공개토론회, 델파이기법), ⑧ 통합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조사 내용 및 변수 측정

가. 조사 내용

김성이·채구목(1997:27-37)은 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욕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경우 욕구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다음의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지역사회의 일반적 특징, ② 삶의 영역에 관한 현재 상태, ③ 기존 서비스 평가, ④ 새로운 서비스 개발, ⑤ 지역사회 정보체제, ⑥ 서비스 자원 조사, ⑦ 정치적 자원.

이번 조사의 내용은 대체로 위와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일반적 특징은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적 배경을 통해 파악했으며, 자료 분석 시 통제변수로 활용했다. 삶의 영역에 관한 현재 상태는 가족 생활 실태를 중심으로 파악했으며, 기존 서비스 평가에는 기존 서비스의 인지 정도 및 활용에 대한 장애 요소 존재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사회문제의 심각도에 대한 인식, 사회문제 해결의 책임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의 중요성 평가,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등의 정보를 수집했으며, 지역사회 정보체제에 관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았고, 서비스 자원 조사에 관한 내용으로는 사회복지단체 후원, 이웃돕기 활동, 사회복지 공동모금 등을 포함시켰다. 정치적 자원에 관한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보는 항목이 포함되었다.³⁾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① 기존 서비스 인지 및 활용 정도, ② 사회문제 인식 정도, ③ 필요한 서비스 ④ 서비스 자원 및 정보체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자료를 서술하고자 한다.

나. 변수 측정 및 자료 처리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사회경제적 배경 가운데 일부는 질문지상의 범주를 재분류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세현 외(1999)를 참조할 것.

할 경우에 기타 사항(결혼형태는 제외함), 무응답의 범주는 분석에서 탈락시킨 후 분석에 임했다.

결혼형태는 미혼, 기혼, 기타(별거, 이혼, 사별, 기타 포함) 세 범주로, 학력은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무학,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② 중학교 중퇴 및 졸업, ③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④ 전문대 재학 이상(전문대 재학·중퇴·졸업, 4년제 대학 중퇴 및 졸업, 대학원 중퇴 및 졸업) 네 범주로, 주관적 계층은 중상층 이상(상층, 중상층), 중층, 중하층, 하층 이하(하층, 영세, 극빈) 네 범주로 재분류했다. 다음으로 월 평균 수입은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99만원, ③ 100만원-149만원, ④ 150만원-199만원, ⑤ 200만원-249만원, ⑥ 250만원 이상(250만원-299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여섯 범주로 재분류했다. 직업은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기능직, ⑤ 농·어민, ⑥ 주부, ⑦ 학생, ⑧ 무직, ⑨ 기타(공익근무요원, 재수생, 군인 등) 아홉 범주로 나누어 분석에 활용했다. 나머지 변수들의 측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이 글의 '자료 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전 부호화 및 편집부호화, 입력 등의 작업 과정을 거쳐 SPSS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였다. 조사 결과의 분석은 주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자료 분석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가. 인구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432명(43.4%), 여성이 563명(56.6%)이고, 연령별로는 20대 360명(36.2%), 30대 215명(21.6%), 40대 262명(26.3%), 50대 104명(10.5%), 60대 이상 54명(5.4%)이며, 결혼형태별로는 미혼 320명(32.2%),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적 특성

구 분		표 본		모 집 단		비 고
		사례수	백분율	인구수	백분율	
성	남	432	43.4	265,098	49.6	-6.3%
	여	563	56.6	269,612	50.4	+6.2%
연령	20대	360	36.2	100,533	18.8	+17.4%
	30대	215	21.6	95,144	17.8	+3.8%
	40대	262	26.3	64,887	12.1	+14.2%
	50대	104	10.5	49,999	9.4	+1.1%
	60대 이상	54	5.4	59,619	11.1	-5.7%
거주지역	제주시	516	51.8	270,842	50.7	+1.2%
	서귀포시	165	16.6	85,142	15.9	+0.7%
	북제주군	200	20.1	100,540	18.8	+1.3%
	남제주군	114	11.5	78,186	14.6	-3.1%
결혼형태	미혼	320	32.2			
	기혼	617	62.0			
	기타	58	5.8			

주: 1) 모집단의 인구수와 백분율은 제주도(1999) 참조.

2) 성별, 거주지역 범주의 모집단 인구는 0세 이상 모든 인구를 포함함.

기혼 617명(62.0%), 기타 58명(5.8%)이다.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시 516명(51.8%), 서귀포시 165명(16.6%), 북제주군 200명(20.1%), 남제주군 114명(11.5%)이다.

그런데 모집단 인구와 표본을 비교했을 경우, 연령에 있어 다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20대와 40대에서 각각 +17.4%, +14.2%만큼이나 과대표집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감안한다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단순빈도분석의 결과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와 40대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나.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직업별 특성을 보면, 전문·관리직 48명(4.8%), 사무직 76명(7.6%), 판매·서비스직 257명(25.8%), 생산·기능직 60명(6.0%), 농·어민 118명(11.9%), 주부 145명(14.6%), 학생 149명(15.0%), 무직 53명(5.3%), 기타(군인, 재수생 등) 33명(3.3%)이고, 무응답한 경우가 56명

(5.6%)이다.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67명(6.7%), 중학교 중퇴 및 졸업이 112명(11.3%),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416명(41.8%), 전문대 재학 이상이 388명(39.0%)이고, 무응답한 경우가 12명(1.2%)이다.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 126명(12.7%), 천주교 111명(11.2%), 불교 389명(39.1%), 기타(유교, 증산교 등) 11명(0.3%)이고,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58명(36.0%)이다.

주관적 계층은 중상층 이상 120명(12.1%), 중층 526명(52.9%), 중하층 229명(23.0%), 하층 이하가 113명(11.4%)이며, 무응답한 경우가 7명(0.7%)이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41명(14.2%)이고, 50만원-99만원 272명(27.3%), 100만원-149만원 282명(28.2%), 150만원-199만원 128명(12.9%), 200만원-249만원 72명(7.2%), 250만원 이상이 48명(4.8%)이며, 무응답한 경우가 52명(5.2%)이다.

2. 기존 서비스 인지 및 활용 정도

제주도내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잘 알려져 있고, 또한 그들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데 장애요인은 무엇이 있는가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84.8%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듣게 된 경로를 보면,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64.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18.2%)이며, 이어서 '자원봉사'(14.3%)를 통해서, 기타(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또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들어

4) 기타 사항에는 '업무상 알게 되었다',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다', '지나가다 간판을 보고 알게 되었다' 등의 응답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사람들의 경우, 그런 곳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16.1%)거나 '조금 알고 있다'(66.4%)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제주 지역 주민들은 피상적 수준에서는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관한 인지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받아본 경험을 알아보면,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8%에 그치고 있다. 서비스의 인지 정도에 비해 서비스 활용도는 훨씬 뒤떨어져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조사대상자의 75.8%는 어떤 형태로든 복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장애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 가운데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16.1%), '기관의 위치를 잘 모른다'(16.0%)는 응답이 가장 많다. 이밖에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12.8%), '도움이 필요할 때 기관이 문을 열지 않는다'(10.1%)는 지적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교통불편, 교통수단 결여'라는 지적은 8.0%,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서'라는 응답은 5.7%이고, '처리비용이 들어서' 복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3.5%에 그친다. 기타(3.6%) 사항에는 '이용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복지기관을 믿을 수 없다', '탁상 행정을 한다', '절차를 잘 모른다' 등의 응답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의 발견은 앞으로 복지기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신뢰성을 쌓고, 기관에 대한 정보 및 접근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3. 사회문제 인식 정도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욕구 식별 및 욕구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이 연구에서 사회문제 인식 정도에 대한 변수는 "현재 제주지역에서 다음에 제시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심각’(5점)이라는 응답으로부터 ‘전혀 심각하지 않다’(1점)라는 응답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각 사회문제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심각도의 순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문화·여가시설 부족(3.9809) > 청소년비행(3.9206) > 실업문제(3.9176) > 청소년 유해환경 문제(3.8201) > 범죄문제(3.7387) > 환경오염문제(3.7146) > 노인문제(3.6975) > 교통문제(3.6754) > 가족해체문제(3.5487) > 빈곤문제(3.5266) > 보건위생문제(3.4392) > 성차별문제(3.3709) > 주택문제(3.1920)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의 사회적 경험 및 사회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전병재, 1980; 1990).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사회문제 인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표 2>와 <표 3>은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 사회문제 인식에 대한 평균 점수를 요약, 비교한 것이다.

<표 2>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 사회문제 인식 정도(1)

		평균(표준편차)						
구분		실업문제	빈곤문제	환경오염	교통문제	범죄문제	보건의료 문제	청소년 비행
성	남 여	3.87(.90) 3.95(.83)	3.49(.89) 3.56(.81)	3.64(1.08) 3.77(.95)	3.59(1.06) 3.74(.90)	3.68(.88) 3.79(.82)	3.43(.87) 3.45(.79)	3.83(.90) 3.99(.80)
	F	2.07	1.56	4.31*	6.20*	4.18*	.08	8.12
연령	20대	3.90(.84)	3.47(.82)	3.65(1.00)	3.69(.91)	3.67(.87)	3.49(.81)	3.92(.88)
	30대	3.93(.83)	3.47(.80)	3.64(.98)	3.67(1.00)	3.74(.77)	3.42(.79)	3.98(.74)
	40대	3.95(.88)	3.58(.87)	3.76(1.03)	3.64(1.00)	3.72(.87)	3.38(.84)	3.86(.85)
	50대	3.89(.93)	3.68(.91)	3.91(.92)	3.87(.92)	3.89(.82)	3.50(.89)	3.99(.90)
	60대 이상	3.85(.94)	3.59(.88)	3.83(1.11)	3.39(1.14)	3.89(.94)	3.33(.86)	3.82(.95)
	F	.23	1.94	2.04	2.38	1.68	1.08	4.77
거주지역	제주서 시키폘시	4.02(.79)	3.56(.79)	3.76(.96)	3.78(.81)	3.83(.81)	3.51(.80)	4.03(.79)
	북제주군	3.91(.85)	3.45(.91)	3.39(1.16)	3.43(1.07)	3.47(.88)	3.25(.91)	3.72(.87)
	남제주군	3.72(.95)	3.44(.81)	3.73(.98)	3.68(1.02)	3.63(.80)	3.41(.70)	3.73(.84)
	F	3.83(.96)	3.64(.98)	3.96(.91)	3.57(1.06)	3.92(.96)	3.45(.96)	4.04(.97)
F	6.46***	2.13	8.61***	5.91***	10.65***	4.06**	10.39***	
가족형태	미혼	3.93(.84)	3.47(.81)	3.67(1.00)	3.70(.92)	3.68(.85)	3.44(.80)	3.91(.88)
	기혼	3.92(.87)	3.55(.85)	3.76(1.02)	3.69(.99)	3.77(.84)	3.46(.83)	3.93(.84)
	기타	3.82(.90)	3.60(.97)	3.53(1.00)	3.36(.99)	3.78(.94)	3.22(.94)	3.90(.83)
F	.36	1.22	1.76	3.21*	1.20	2.15	.11	
직업	전문·관리직	4.08(.68)	3.52(.71)	3.77(1.02)	3.71(1.05)	3.73(.94)	3.52(.80)	3.92(.79)
	사무직	3.80(.83)	3.47(.76)	3.59(1.01)	3.76(.94)	3.78(.76)	3.54(.74)	3.93(.74)
	판매·서비스직	3.86(.88)	3.49(.81)	3.70(1.03)	3.69(.99)	3.68(.86)	3.30(.82)	3.84(.88)
	생산·기능직	3.78(.78)	3.27(.84)	3.38(1.11)	3.53(1.07)	3.70(.87)	3.40(.81)	3.87(.89)
	농·어민	3.71(1.04)	3.53(.96)	3.92(.96)	3.63(1.14)	3.88(.86)	3.52(.84)	3.81(.89)
	주부	4.11(.78)	3.65(.85)	3.72(.96)	3.66(.85)	3.79(.83)	3.48(.78)	4.10(.77)
	학생	3.89(.88)	3.52(.84)	3.71(.98)	3.74(.86)	3.65(.82)	3.53(.82)	3.91(.90)
	부직	4.06(.72)	3.68(.89)	3.74(1.00)	3.62(.92)	3.77(.85)	3.47(.99)	3.89(.82)
	F	2.98**	1.63	1.86	.44	1.04	1.73	1.51
	학력	초등학교졸업이하	3.85(.89)	3.67(.82)	3.70(1.10)	3.40(1.09)	3.81(.91)	3.25(.93)
중학교졸퇴·졸업	4.09(.82)	3.72(.88)	3.81(1.00)	3.77(1.01)	3.81(.91)	3.41(.93)	4.02(.84)	
고등학교졸퇴·졸업	3.85(.91)	3.51(.89)	3.70(1.02)	3.70(.95)	3.75(.85)	3.42(.80)	3.92(.84)	
전문대재학이상	3.95(.82)	3.46(.77)	3.71(.98)	3.69(.94)	3.71(.81)	3.50(.79)	3.93(.84)	
F	2.80*	3.46*	.37	2.22	.60	1.95	1.44	
종교	기독교	3.95(.82)	3.50(.89)	3.73(.98)	3.63(.93)	3.64(.85)	3.48(.94)	3.94(.83)
	천주교	3.97(.85)	3.49(.87)	3.71(1.13)	3.68(.99)	3.73(.81)	3.34(.78)	4.01(.78)
	불교	4.01(.83)	3.60(.82)	3.75(.97)	3.73(.96)	3.82(.82)	3.50(.81)	3.95(.88)
	종교없음	3.97(.91)	3.46(.85)	3.68(1.03)	3.64(1.00)	3.69(.90)	3.40(.81)	3.86(.85)
	F	4.24**	.80	.32	.74	2.07	1.55	1.17
주관적 개념	중상층이상	4.03(.84)	3.47(.82)	3.72(1.02)	3.73(.85)	3.79(.87)	3.45(.82)	3.93(.86)
	중층	3.93(.86)	3.52(.86)	3.83(.99)	3.75(.97)	3.79(.83)	3.48(.79)	3.98(.84)
	중하층	3.90(.87)	3.57(.83)	3.59(1.02)	3.61(.97)	3.66(.88)	3.44(.87)	3.84(.88)
	하층이하	3.81(.85)	3.56(.81)	3.44(1.00)	3.40(1.07)	3.58(.83)	3.19(.87)	3.78(.82)
F	1.41	.44	6.17***	4.57**	2.98*	3.83**	2.60	
월수입	50만원미만	4.00(.83)	3.66(.79)	3.75(.99)	3.68(1.00)	3.80(.86)	3.43(.86)	3.87(.82)
	50-99만원	3.89(.88)	3.56(.84)	3.72(.98)	3.67(.99)	3.76(.88)	3.45(.84)	3.89(.89)
	100-149만원	3.93(.90)	3.53(.88)	3.76(1.02)	3.73(.97)	3.81(.83)	3.46(.83)	3.95(.84)
	150-199만원	3.83(.83)	3.48(.81)	3.64(1.02)	3.65(.92)	3.61(.87)	3.46(.84)	3.90(.84)
	200-249만원	4.06(.79)	3.46(.82)	3.83(1.02)	3.72(1.02)	3.79(.73)	3.43(.74)	4.14(.77)
	250만원이상	3.88(.89)	3.35(.98)	3.54(1.13)	3.58(1.05)	3.63(.87)	3.44(.82)	3.90(.86)
F	.96	1.29	.76	.28	1.29	.03	1.24	

*p<.05 **p<.01 ***p<.001

<표 3>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 사회문제 인식 정도(2)

평균(표준편차)

구분	주택문제	청소년 유해환경	문화여가 시설부족	노인문제	가족해체	성차별 문제	
성	남	3.14(.85)	3.77(.90)	3.96(.88)	3.62(.93)	3.44(.91)	3.18(.91)
	여	3.23(.79)	3.86(.78)	3.99(.89)	3.75(.89)	3.63(.83)	3.52(.83)
	F	3.49	2.64	.49	5.20*	13.20***	38.35***
연령	20대	3.24(.80)	3.86(.81)	4.18(.83)	3.70(.86)	3.56(.83)	3.46(.90)
	30대	3.16(.78)	3.83(.76)	3.98(.85)	3.55(.90)	3.54(.84)	3.44(.83)
	40대	3.13(.81)	3.79(.87)	3.79(.91)	3.71(.96)	3.56(.87)	3.29(.85)
	50대	3.17(.88)	3.84(.85)	3.84(.85)	3.83(.92)	3.55(1.01)	3.23(.91)
	60대 이상	3.30(1.00)	3.61(1.07)	3.61(1.09)	3.98(.90)	3.44(.95)	3.18(.99)
	F	.99	1.16	9.72***	3.33**	.22	3.09*
거주 지역	제주시	3.27(.81)	3.93(.79)	4.03(.86)	3.73(.87)	3.63(.84)	3.48(.85)
	서귀포시	3.20(.81)	3.50(.89)	3.82(1.00)	3.57(.92)	3.38(.87)	3.22(.92)
	북제주군	3.10(.84)	3.75(.78)	3.97(.78)	3.70(.91)	3.74(.96)	3.27(.87)
	남제주군	3.02(.80)	3.90(.95)	4.00(.97)	3.75(1.03)	3.55(.87)	3.28(.95)
	F	4.08**	12.73***	2.49	1.38	8.07***	5.70***
결혼 형태	비혼	3.21(.77)	3.87(.79)	4.21(.82)	3.69(.86)	3.52(.85)	3.43(.89)
	기혼	3.18(.84)	3.81(.85)	3.89(.89)	3.71(.93)	3.56(.87)	3.36(.88)
	기타	3.24(.84)	3.60(.95)	3.72(.95)	3.60(.92)	3.53(.92)	3.16(.87)
	F	.26	.26	16.67***	.36	.26	2.61
직업	전문·관리직	3.27(.71)	3.81(.98)	4.02(.79)	3.77(.83)	3.90(.81)	3.63(.82)
	사무직	3.16(.78)	3.92(.86)	4.08(.86)	3.66(.95)	3.55(.79)	3.49(.90)
	판매·서비스직	3.05(.80)	3.80(.78)	3.90(.86)	3.70(.94)	3.46(.88)	3.29(.85)
	생산·기능직	3.20(.78)	3.62(.98)	3.75(.95)	3.45(.87)	3.48(.89)	3.27(.94)
	농·어업	3.11(.87)	3.81(.87)	3.84(.94)	3.75(.99)	3.46(.96)	3.23(.96)
	주부	3.29(.87)	3.85(.79)	3.95(.90)	3.79(.84)	3.73(.78)	3.57(.81)
	학생	3.28(.82)	3.90(.80)	4.23(.80)	3.68(.75)	3.52(.79)	3.40(.96)
	부직	3.30(.89)	3.70(.87)	3.98(1.01)	3.71(.90)	3.57(.84)	3.32(.89)
	F	2.00	1.07	3.26**	1.04	2.82**	2.64*
학력	초등학교졸업이하	3.22(.83)	3.49(.94)	3.58(1.02)	3.81(1.02)	3.28(.98)	3.10(1.03)
	중학교졸퇴·졸업	3.33(.87)	3.84(.90)	3.80(.95)	3.73(.99)	3.67(.92)	3.31(.83)
	고등학교졸퇴·졸업	3.15(.84)	3.79(.84)	3.93(.87)	3.65(.91)	3.55(.87)	3.39(.86)
	전문대제학이상	3.18(.77)	3.91(.78)	4.16(.83)	3.73(.86)	3.56(.82)	3.42(.88)
	F	1.42	5.14**	12.21***	.86	2.87*	2.71*
종교	기독교	3.30(.78)	3.97(.83)	4.13(.83)	3.80(.89)	3.74(.86)	3.46(.82)
	천주교	3.29(.78)	3.86(.77)	3.97(.91)	3.70(.93)	3.59(.85)	3.51(.88)
	불교	3.25(.79)	3.78(.86)	3.87(.90)	3.70(.91)	3.58(.87)	3.46(.85)
	종교없음	3.06(.87)	3.81(.83)	4.07(.86)	3.66(.90)	3.44(.86)	3.20(.91)
	F	5.14**	1.80	4.50**	.77	4.29**	7.35***
주관 식 개념	증상층이상	3.14(.88)	3.86(.84)	3.98(.83)	3.61(.91)	3.73(.83)	3.47(.90)
	중층	3.19(.80)	3.85(.82)	4.04(.90)	3.76(.90)	3.56(.87)	3.40(.86)
	중하층	3.14(.82)	3.83(.81)	3.90(.86)	3.66(.88)	3.50(.91)	3.38(.88)
	하층이하	3.34(.82)	3.61(.93)	3.88(.93)	3.56(.96)	3.42(.79)	3.12(.95)
	F	1.58	2.68*	1.85	2.30	2.82*	3.59*
월 수입	50만원미만	3.33(.81)	3.69(.87)	3.84(.92)	3.68(.84)	3.43(.86)	3.38(.91)
	50-99만원	3.24(.84)	3.86(.78)	4.04(.90)	3.70(.92)	3.56(.92)	3.33(.93)
	100-149만원	3.13(.81)	3.85(.82)	3.98(.86)	3.73(.92)	3.60(.84)	3.40(.87)
	150-199만원	3.16(.78)	3.80(.89)	3.98(.86)	3.77(.94)	3.64(.89)	3.47(.89)
	200-249만원	3.19(.90)	4.00(.75)	4.13(.92)	3.75(.82)	3.49(.80)	3.47(.86)
	250만원이상	3.04(.92)	3.71(1.11)	4.08(.74)	3.44(.94)	3.56(.85)	3.08(.90)
	F	1.60	1.71	1.36	1.09	1.13	1.63

*p<.05 **p<.01 ***p<.001

① 실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거주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의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학력별로는 중학교 중퇴·졸업과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층에서, 종교별로는 불교 신자층에서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② 빈곤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학력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고학력층보다는 저학력층에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③ 환경오염문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하층 이하의 계층보다는 중층 이상의 계층에서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남제주군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이어서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교통문제 역시 여성들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결혼형태별로는 이혼·별거 등의 경우보다 미혼 및 기혼층에서,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층 이상의 계층에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의 순이다. ⑤ 범죄문제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또한 중층 이상의 계층에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남제주군,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의 순으로 나타난다. ⑥ 보건위생문제는 하층 이하의 계층에 비해 중하층 이상의 계층에서 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이다.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⑦ 청소년비행 문제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남제주군과 제주시 주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⑧ 주택문제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비해 종교 신자층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 주민들이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⑨ 청소년 유해환경 문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층에 비해 중학교 중퇴·졸업 이상의 학력층에서, 중층 이상의 계층에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시의 순으로 나타난다. ⑩ 문화·여가시설 부족은 20대 및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결혼형태별로는 미혼층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직업별로는 학생, 사무직,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이, 학력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종교별로는 기독교 신자층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여가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 인식은 나이, 결혼형태, 직업, 학력, 종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문제의 심각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가장 우선 순위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민들의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강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⑪ 노인문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의 연령층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⑫ 가족해체는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중학교 중퇴·졸업 이상의 학력층, 기독교 신자층, 중상층 이상의 계층에서 비교적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이다. 거주지역별로는 북제주군, 제주시, 남제주군, 서귀포시의 순으로 나타난다. ⑬ 성차별 문제는 여성, 저연령층, 전문·관리직 종사자, 고학력층, 종교 신자층, 중층 이상의 계층에서 비교적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시의 순이다.

4. 필요한 서비스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우선 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 프로그램들을 복지관이 실시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필요’(5점)하다는 응답에서부터 ‘매우 불필요하다’(1점)는 응답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 실시의 필요성 및 우선 순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불량청소년 지도(4.2746) > 의료상담, 치료 프로그램(4.2673) > 노인여가시설(4.2211) > 생활보호가정 노인·아동 후원사업(4.1739) > 불우가정 재가복지(4.1729) > 직업·부업훈련 및 알선(4.1668) > 청소년 직업교육 프로그램(4.0593) > 정서·행동장애 자녀 프로그램(4.0131) > 근로청소년 야학(3.9608) > 저소득가정 실비 주거시설(3.9407) > 가정문제 상담(3.9196) > 여가선용 프로그램(3.9095) > 아동 방과후 공부방(3.9085) > 부모-자녀 역할 교육(3.8472) > 독서실(3.7126)

각 프로그램 실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알아보면 <표 4>와 <표 5>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다.

<표 4>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성 정도(1)

평균(표준편차)

구분	아동방과 후 공부방	여가선용 프로그램	직업·부 업 훈련 및 알선	불량청소년 지도	근로청소년 야학	생활보호 가정노인 · 아동 후원	복유가정 재가복지	
성	남	3.90(.80)	3.90(.77)	4.11(.73)	4.27(.71)	3.97(.76)	4.13(.71)	
	여	3.92(.79)	3.92(.73)	4.21(.72)	4.28(.72)	3.96(.76)	4.21(.71)	
	F	.20	.26	5.32*	.15	0.6	3.30	
연령	20대	3.86(.77)	4.01(.74)	4.19(.72)	4.29(.73)	4.00(.74)	4.21(.68)	
	30대	4.06(.82)	3.95(.69)	4.19(.73)	4.38(.69)	4.00(.76)	4.27(.65)	
	40대	3.93(.73)	3.83(.72)	4.16(.71)	4.25(.68)	3.96(.74)	4.10(.70)	
	50대	3.93(.85)	3.89(.81)	4.18(.76)	4.24(.73)	3.89(.80)	4.13(.80)	
	60대 이상	3.50(.80)	3.48(.74)	3.91(.76)	4.00(.75)	3.65(.85)	4.00(.85)	
	F	5.94***	7.20***	1.89	3.26*	2.94*	3.10*	.99
거주 지역	제주시	3.90(.79)	3.93(.73)	4.19(.67)	4.27(.72)	4.00(.74)	4.20(.69)	
	서귀포시	3.78(.85)	3.77(.75)	4.01(.80)	4.17(.75)	3.92(.80)	4.08(.82)	
	북제주군	3.89(.71)	3.79(.78)	4.17(.74)	4.30(.77)	3.90(.77)	4.23(.69)	
	남제주군	4.16(.78)	4.21(.66)	4.28(.78)	4.54(.61)	3.96(.79)	4.13(.71)	
	F	5.42***	10.36***	3.88**	7.01***	1.07	1.66	1.01
결혼 형태	비혼	3.84(.80)	4.02(.76)	4.20(.73)	4.30(.76)	4.00(.75)	4.20(.71)	
	기혼	3.96(.79)	3.87(.72)	4.17(.72)	4.30(.68)	3.96(.76)	4.18(.71)	
	기타	3.69(.78)	3.72(.79)	3.97(.70)	3.97(.72)	3.71(.75)	4.02(.69)	
	F	4.76**	6.17**	2.53	5.87**	3.71*	1.59	2.06
직업	전문·관리직	4.08(.74)	4.04(.62)	4.17(.60)	4.50(.55)	4.15(.74)	4.25(.64)	
	사무직	3.93(.88)	4.16(.71)	4.18(.76)	4.37(.76)	3.91(.77)	4.00(.73)	
	판매·서비스직	3.88(.76)	3.77(.72)	4.07(.78)	4.31(.69)	4.01(.77)	4.23(.71)	
	생산·기능직	3.82(.83)	3.83(.59)	4.12(.69)	4.18(.65)	4.00(.71)	4.13(.62)	
	농·어업	3.91(.83)	3.86(.83)	4.21(.76)	4.25(.64)	3.91(.76)	4.12(.75)	
	주부	4.02(.83)	4.03(.67)	4.25(.65)	4.25(.67)	3.96(.76)	4.20(.61)	
	학생	3.83(.79)	3.95(.81)	4.22(.67)	4.27(.79)	4.00(.76)	4.25(.76)	
	부직	3.79(.74)	3.83(.80)	4.06(.79)	4.13(.79)	3.77(.72)	4.19(.68)	
	F	1.29	3.65***	1.25	1.47	1.23	1.38	.56
	학력	초등학교졸업이하	3.57(.80)	3.52(.68)	3.94(.77)	4.04(.74)	3.61(.89)	3.96(.88)
중학교졸퇴·졸업		3.92(.72)	3.77(.76)	4.11(.71)	4.21(.72)	3.83(.77)	4.06(.74)	
고등학교졸퇴·졸업		3.94(.80)	3.84(.71)	4.13(.74)	4.32(.70)	3.96(.75)	4.16(.69)	
전문대제하이상		3.93(.76)	4.09(.74)	4.26(.69)	4.29(.71)	4.05(.72)	4.25(.68)	
F		4.48**	17.00***	4.72**	3.25*	7.96***	4.61**	3.57*
종교	기독교	3.89(.78)	4.07(.70)	4.06(.77)	4.30(.70)	4.05(.76)	4.25(.64)	
	천주교	4.00(.73)	3.95(.72)	4.28(.66)	4.29(.73)	3.97(.77)	4.23(.67)	
	불교	3.88(.77)	3.86(.77)	4.13(.71)	4.31(.73)	3.96(.78)	4.15(.74)	
	종교없음	3.92(.84)	3.91(.73)	4.21(.73)	4.24(.70)	3.94(.72)	4.15(.71)	
F	.66	2.57	2.63*	.67	.79	.95	1.05	
주관 적 계층	중상층이상	4.03(.83)	4.08(.67)	4.25(.72)	4.30(.72)	3.99(.80)	4.25(.70)	
	중층	3.94(.75)	3.96(.74)	4.20(.70)	4.34(.67)	3.98(.73)	4.21(.66)	
	중하층	3.77(.82)	3.83(.72)	4.12(.74)	4.21(.71)	3.94(.77)	4.08(.75)	
	하층이하	3.91(.84)	3.71(.82)	4.01(.78)	4.09(.88)	3.89(.84)	4.13(.81)	
F	3.56*	6.63***	2.78*	4.82**	.57	2.22	5.08**	
월 수입	50만원미만	3.75(.79)	3.71(.78)	4.09(.79)	4.16(.76)	3.82(.78)	4.04(.77)	
	50-99만원	3.89(.81)	3.93(.76)	4.17(.73)	4.29(.71)	4.00(.75)	4.16(.72)	
	100-149만원	4.07(.78)	3.95(.75)	4.26(.71)	4.35(.68)	4.02(.75)	4.23(.69)	
	150-199만원	3.88(.73)	3.89(.71)	4.16(.69)	4.23(.69)	3.95(.75)	4.20(.66)	
	200-249만원	3.88(.71)	4.03(.67)	4.15(.64)	4.32(.62)	3.96(.74)	4.17(.69)	
	250만원이상	3.79(.84)	4.23(.63)	4.19(.67)	4.19(.98)	4.00(.83)	4.35(.60)	
F	3.73**	4.52***	1.16	1.72	1.41	2.08	1.36	

*p<.05 **p<.01 ***p<.001

<표 5>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성 정도(2)

평균(표준편차)

구분	저소득가정실비부조 거시시설	가정문제 상담	부모-자녀 역할 교육	청소년 직업교육 프로그램	정서·행 동장애자 녀 프로그램	독서실	노인여 가 시설	의료상 담,치료 프로그램	
성	남	3.97(.78)	3.88(.75)	3.83(.81)	4.04(.74)	3.99(.73)	3.67(.94)	4.25(.70)	4.28(.79)
	F	.80	2.54	.42	.72	.83	1.90	1.50	.09
연령	20대	3.95(.73)	3.96(.73)	3.83(.82)	4.08(.78)	4.09(.74)	3.66(.91)	4.24(.68)	4.28(.76)
	30대	3.93(.73)	3.94(.69)	3.94(.72)	4.08(.66)	4.07(.72)	3.85(.81)	4.18(.71)	4.29(.72)
	40대	3.92(.78)	3.96(.73)	3.91(.72)	4.07(.68)	4.01(.69)	3.78(.85)	4.23(.67)	4.20(.76)
	50대	3.91(.87)	3.80(.78)	3.75(.84)	3.98(.68)	3.83(.84)	3.63(.79)	4.29(.80)	4.33(.86)
	60대 이상	4.09(.71)	3.61(.74)	3.44(.90)	3.91(.81)	3.65(.80)	3.31(.98)	4.11(.82)	4.31(.67)
F	.64	3.63**	5.32***	1.08	6.20***	5.10***	.84	.76	
거주지역	제주시	3.94(.74)	3.95(.74)	3.86(.78)	4.05(.74)	4.05(.74)	3.66(.82)	4.19(.69)	4.22(.75)
	서귀포시	3.93(.77)	3.77(.70)	3.69(.87)	3.99(.68)	3.90(.77)	3.59(1.01)	4.22(.75)	4.18(.80)
	북제주군	3.96(.78)	3.93(.74)	3.87(.81)	4.12(.71)	3.97(.72)	3.88(.84)	4.25(.70)	4.40(.76)
	남제주군	3.95(.80)	4.00(.73)	4.00(.65)	4.09(.72)	4.10(.79)	3.82(.89)	4.32(.71)	4.37(.69)
F	.70	3.02*	3.68*	1.00	2.34	4.56**	1.18	4.12**	
길흔형태	미혼	3.96(.73)	3.98(.73)	3.82(.82)	4.08(.78)	4.10(.73)	3.69(.92)	4.26(.67)	4.31(.74)
	기혼	3.94(.76)	3.91(.74)	3.89(.77)	4.06(.68)	3.99(.75)	3.74(.84)	4.21(.72)	4.26(.77)
	기타	3.81(.85)	3.71(.70)	3.57(.80)	3.91(.80)	3.78(.77)	3.47(.92)	4.12(.68)	4.14(.76)
	F	.96	3.41*	4.59**	1.33	5.63**	2.92	1.13	1.29
직업	전문·관리직	4.10(.75)	4.17(.60)	4.13(.70)	4.27(.61)	4.25(.73)	3.81(.89)	4.27(.71)	4.15(.87)
	사무직	3.97(.67)	4.08(.69)	4.04(.76)	4.14(.74)	4.13(.82)	4.00(.80)	4.34(.70)	4.39(.71)
	판매·서비스직	3.94(.77)	3.94(.76)	3.84(.79)	4.07(.69)	4.04(.74)	3.75(.85)	4.24(.70)	4.28(.73)
	생산·기능직	3.95(.72)	3.83(.64)	3.70(.67)	3.88(.58)	4.05(.57)	3.63(.92)	4.25(.65)	4.35(.73)
	농·어민	3.92(.88)	3.77(.79)	3.71(.81)	4.04(.66)	3.86(.77)	3.64(.88)	4.18(.81)	4.23(.75)
	주부	3.90(.71)	3.91(.67)	3.97(.74)	4.10(.70)	3.99(.71)	3.72(.82)	4.19(.69)	4.23(.75)
	학생	3.90(.77)	3.92(.78)	3.76(.85)	4.01(.86)	4.08(.75)	3.68(.88)	4.26(.69)	4.32(.78)
	무직	4.04(.68)	3.87(.83)	3.70(.91)	3.79(.77)	3.77(.80)	3.57(1.01)	4.17(.67)	4.22(.82)
	F	.60	2.14*	3.31**	2.47*	2.78**	1.75	.55	.79
학력	초등학교졸업이하	3.91(.77)	3.52(.61)	3.36(.88)	3.82(.65)	3.54(.82)	3.22(.87)	4.10(.86)	4.22(.76)
	중학교졸퇴/졸업	3.88(.75)	3.88(.71)	3.90(.72)	4.07(.64)	3.90(.71)	3.77(.75)	4.23(.68)	4.17(.83)
	고교졸퇴/졸업	3.92(.78)	3.91(.75)	3.84(.77)	4.06(.72)	4.02(.73)	3.73(.85)	4.16(.71)	4.25(.77)
	전문대재학이상	3.98(.74)	4.01(.73)	3.92(.79)	4.10(.76)	4.11(.73)	3.77(.90)	4.30(.67)	4.32(.72)
F	.73	8.82***	10.05***	2.77*	12.64***	7.80***	3.36*	1.61	
종교	기독교	3.98(.72)	4.04(.77)	4.09(.69)	4.14(.69)	4.10(.73)	3.75(.90)	4.26(.65)	4.25(.77)
	천주교	3.96(.77)	3.93(.71)	3.94(.74)	4.14(.72)	4.05(.76)	3.89(.81)	4.32(.67)	4.34(.69)
	불교	3.89(.76)	3.93(.71)	3.83(.78)	4.07(.71)	3.98(.76)	3.67(.86)	4.20(.74)	4.25(.76)
	종교 없음	3.96(.76)	3.86(.75)	3.76(.82)	4.00(.74)	4.02(.73)	3.70(.89)	4.20(.69)	4.27(.78)
F	.69	2.00	6.04***	1.91	.80	2.01	1.01	.46	
주관 계층	중상층이상	4.01(.78)	3.95(.82)	3.92(.76)	4.10(.74)	4.09(.77)	3.80(.95)	4.29(.75)	4.35(.69)
	중층	3.95(.77)	3.99(.71)	3.89(.77)	4.13(.71)	4.07(.72)	3.73(.86)	4.29(.68)	4.30(.73)
	중하층	3.87(.73)	3.82(.70)	3.79(.80)	3.93(.73)	3.92(.74)	3.65(.84)	4.10(.69)	4.14(.85)
	하층이하	3.98(.73)	3.78(.75)	3.67(.83)	3.99(.70)	3.85(.80)	3.68(.91)	4.09(.76)	4.27(.72)
F	1.13	4.46**	3.09*	4.41**	4.49**	.97	6.05***	3.23**	
월 수입	50만원미만	3.81(.70)	3.73(.70)	3.65(.82)	3.90(.74)	3.73(.78)	3.51(.88)	4.02(.81)	4.21(.81)
	50-99만원	3.94(.77)	3.95(.71)	3.83(.80)	4.01(.70)	4.04(.77)	3.71(.90)	4.18(.68)	4.25(.75)
	100-149만원	3.95(.79)	3.97(.72)	3.91(.75)	4.15(.65)	4.04(.68)	3.79(.83)	4.33(.68)	4.32(.74)
	150-199만원	3.98(.70)	3.99(.76)	3.94(.77)	4.09(.73)	4.11(.71)	3.82(.82)	4.23(.72)	4.25(.81)
	200-249만원	4.04(.78)	3.97(.77)	3.93(.76)	4.25(.71)	4.31(.66)	3.56(.93)	4.26(.67)	4.36(.70)
	250만원이상	3.96(.71)	3.92(.79)	3.96(.77)	4.10(.93)	4.02(.86)	3.85(.99)	4.31(.72)	4.20(.77)
F	1.22	2.61*	3.01***	3.52**	6.96***	3.03**	3.97***	.78	

*p<.05 **p<.01 ***p<.001

- ① 아동방과후 프로그램은 특히 30대 연령층, 남제주군 지역, 기혼층, 고학력층, 중층 이상의 계층, 100만원-149만원 이하의 중간소득층에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② 여가선용 프로그램은 저연령층, 남제주군 지역, 미혼층, 사무직 종사자, 고학력층,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고소득층에서 비교적 높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③ 직업·부업 훈련 및 알선 프로그램은 여성, 남제주군 지역, 학력이 높을수록, 천주교 신자층,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100만원-149만원 이하의 중간소득층에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④ 불량청소년 지도는 30대 연령층, 남제주군 지역, 미혼 및 기혼층, 전문·관리직 종사자, 고학력층, 중층, 100만원-149만원 이하의 소득층에서 그 필요성을 높게 인정하고 있다. ⑤ 근로 청소년 야학 프로그램은 저연령층, 미혼층, 고학력층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⑥ 생활보호가정 노인·아동 후원은 30대 연령층, 고학력층에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⑦ 불우가정 재가복지서비스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층,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250만원 이상의 소득층에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⑧ 저소득 가정 실비 주거시설은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⑨ 가정문제 상담 프로그램은 20대와 40대의 연령층, 남제주군 지역, 미혼층, 전문·관리직 종사자, 고학력층, 중층 이상의 계층, 50만원 미만의 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소득층에서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 ⑩ 부모-자녀 역할교육 프로그램은 30대 연령층, 남제주군 지역, 기혼층, 전문·관리직 종사자,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층, 기독교 신자층,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고소득층에서 필요성을 높게 인정하고 있다. ⑪ 청소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전문·관리직 종사자,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층, 100만원-149만원 이하의 소득층에서 필요성을 높게 지적하고 있다. ⑫ 정서·행동장애 자녀 프로그램은 저연령층, 미혼층, 전문·관리직 종사자, 고학력층, 계층이 높을수록, 200만원-249만원 이하의 소득층에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⑬ 독서실 프로그램은 30대 연령층, 북제주군 지역, 중학교 중퇴·졸업의 학력층과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층, 250만원 이상의 소득층에서 필요성을 높게 인정하고 있다. ⑭ 노

인여가시설 서비스는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층, 중층 이상의 계층, 100만원-149만원 이하의 중간소득층에서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 ⑮ 의료상담, 치료 프로그램은 북제주군 지역, 중층 이상의 계층에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5. 서비스 자원 및 정보체제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 조사는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가용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단체 후원, 이웃돕기 활동,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보려 한다.

현재 사회복지단체의 회원이나 후원자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87.8%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 비율은 12.2%에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회복지단체의 회원이나 후원자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61.6%)은 없다는 응답(38.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조사대상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는 노력 봉사(34.4%), 현금(30.2%), 의류(17.4%), 음식(13.4%), 기타(4.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기타 사항에는 상담, 대화, 마음으로 도와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대한 사항이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구성되어 이웃돕기 성금이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35.7%이고,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64.3%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동이 올해부터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 활동에 대한 인지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모금회로 접수된 이웃돕기성금이 쓰여져야 하는 분야의 우선 순위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사회복지시설 지원(30.7%) > 영세민 지원(21.4%) > 장애인복지기금(20.1%) > 실직자문제(18.7%) > 환경보호(5.6%) > 기타(3.5%)

여기서 기타 사항에는 혼자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금을 낼 생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66.6%로 기부금을 낼 생각이 없다는 응답(33.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제주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차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여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존재 및 서비스 내용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한 정보체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대상자의 61.4%는 텔레비전을 꼽고 있다. 다음이 지방신문(11.7%)이고, 이어서 팜플렛(8.7%), 말로 전하는 것(7.0%), 반사회(4.4%), 서비스 수혜자를 통해서 얻는 방법(2.7%), 라디오(2.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1.6%) 사항에는 마을회관 방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V. 맺음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의 계획과 실천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욕구에 기반을 둘 때 비로소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 글은 제주도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생각하는 복지 욕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질문지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 발견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문제점 개선 및 정책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민들은 피상적 수준에서는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인지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실제 서비스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기관은 앞으로 우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신뢰성을 쌓고, 기관에 대한 정보 및 접근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청소년문제나 실업문제보다도 문화·여가시설 부족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민들의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에게 문화 및 여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복지관에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불량청소년 지도, 의료 상담 및 치료서비스와 같이 비교적 새로운 분야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여러 복지관들은 이왕에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 이외에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학교사회사업이나 의료사회사업을 여러 기관 및 조직과 협력하여 실천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사회복지단체 후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제주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차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여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역의 잠재력을 실제로 동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제공한 자원들을 보다 투명하게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제공한 자원으로 인해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세현 외(1999), 『제주도민 사회복지 욕구조사』, 제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성이·채구묵(1997), 『욕구조사론』,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남세진·조홍식(1995),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
- 박용순(1999), 『사회복지개론』, 서울: 학지사.

- 성규탁(1998),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법문사.
- 이인재(1995),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서울: 동풍.
- 전병재(1980), “70년대의 사회문제와 일탈”, 『70년대 한국사회』, 한국사회학회 편, 서울: 평민사.
- 전병재(1990), “한국사회병리의 현상과 그 원인”, 『사회변화와 윤리』,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 서울: 법문사.
- 제주도(1999),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 최일섭·최성재(1995), 『사회문제의 사회복지』, 서울: 나남.
- Barker, Robert L.(1993), *The Social Work Dictionary*, 3rd edition, Washington, DC: The NASW Press.
- Bradshaw, Jonathan(1972), “The Concept of Social Need”, *New Society* 19(March).
- Dean, Hartley(1996), *Welfare, Law and Citizenship*, London: Prentice Hall.
- Hill, Michael and Glen Bramley(1993), *Analysing Social Policy*, Oxford: Blackwell.
- Kettner, Peter M., Robert M. Moroney, and Lawrence L. Martin(1999), *Designing and Managing Programs*, 정무성 역,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과 관리』, 서울: 나눔의집.
- Maslow, Abraham H.(1992), *Motivation and Personality*, 조대봉 역, 『인간의 동기와 성격』, 서울: 교육과학사.
- Rubington, Earl and Martin S. Weinberg(1981), *The Study of Social Problems*,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Cheju Residents' Welfare Needs and Perception of Social Problems

Kang, Sei-hy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eju Halla College

Summary

The aims of this paper are to identify the welfare needs and social problems which Cheju residents perceive, to appraise the services that the established welfare agencies has practiced. In order to do these, this paper examines preliminarily the concept of needs and social problems, types of need,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problems.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is used for this study and a sample survey is conducted in May, 1999. A total of 995 Cheju residents who is over 20 years old responds to the surve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superficially knows about the welfare agencies. But the availability of service is low.

Second, the needs of cultural and leisure facilities is highest among the respondents. Respondents also perceive the importance of juvenile problems and unemployment.

Third, Respondents desire that services for troubled youth, medical counseling and treatments are provided by welfare agencies.

Fourthly, Respondents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 federated fund raising, contributions for services and programs.

Key words : needs, social problems, needs assessment